탈종교화 심화…국민 43% “호감 종교 無”

한국갤럽 ‘한국인 종교 선호도’ 조사 결과 발표

호감도 높은 종교 ‘불교’
가톨릭 호감도 5% 줄어
젊을수록 종교에 ‘비호감’

제도종교 이탈 현상 확인
“불교계 전반적 인식 부족
계층 니즈 파악해 대응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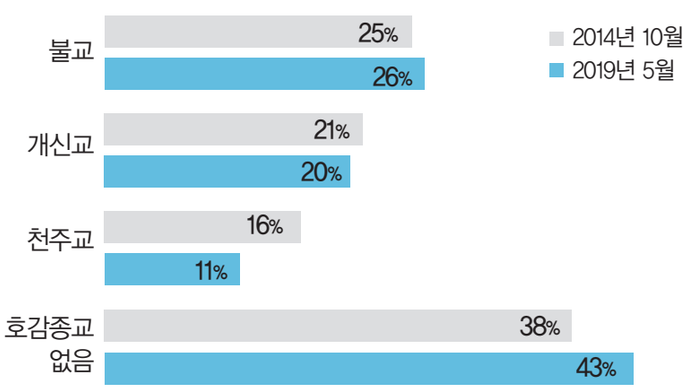
한국 종교 중 국민들에게 가장 높은 호감도를 가진 종교는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돼 탈종교 · 탈제도종교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종교’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만 13세 이상 국민 1700명에게 종교 유무와 관계없이 호감가는 종교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한국갤럽이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43%가 “없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불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6%로 제도 종교 중에는 가장 많다. 개신교는 응답자의 20%, 가톨릭은 11%가 “호감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 종교를 성별로 보면 불교는 남성 23%, 여성 28%의 호감도를 보였고, 개신교는 남성 16%, 여성 24%로 남성보다 여성이 해당 종교를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가톨릭은 남성 10%, 여성 11%로 남녀 선호도가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고연령일수록 현저히 호감도가 높았다. 13~18세는 8%, 19~29세는 12%의 호감도를 보였지만, 60대 이상에서는 40%로 나타났다. 반면 개신교와 천주교 선호도는 전 연령대에 걸쳐 비교적 고른 편이였다.

“좋아하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은 여성(37%)보다 남성(50%)에서, 그리고 저연령(13~18세 60% · 19~29세 61%)일수록 더 많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좋아하는 종교로 가톨릭을 답한 사람은 5% 줄었고, “없다”는 응답은 5%가 늘었다. 불교와 개신교는 1% 이내 차이에 그쳐, 5년 전과 거의 변함없는 수준이었다.

현재 믿는 종교별로 보면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등 주요 3개 종교를 믿는 사람(종교인) 중 약 90%가 자신의 종교를 가장 좋아하는 종교로 꼽았다.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비종교인) 중에서는 불교 12% · 천주교 8% · 개신교 6%였고, 74%는 특별히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탈종교 · 탈제도종교화의 단면이라고 분석하고 불교계의 대응을 요구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탈종교화 시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면서도 “단순한 호감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효용 가치를 현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론적이지만 불교계는 계층별 니즈(needs)를 파악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경쟁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잠시 쉬어가라’ 같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닌 실질적으로 휴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도 “예견된 결과”라면서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과 문화체험 등을 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탈제도종교화’의 측면에서 문제를 볼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한국사회는 종교 개념이 개편되고 있다”면서 “현대인들의 종교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다. 제도권 종교에 대한 거부감에 이탈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불교는 이 같은 사회적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 자체가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탈제도종교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이며, 면접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2.4%포인트다.

동국대 경주총추위 위원 20명 위촉

경주총추위 제1차 회의… 선거 일정 확정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선출이 본격화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법산)는 12월 3일 서울캠퍼스 본관 로터스홀에서 경주부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경주총추위) 제1차 회의를 열어 경주총추위 위원장 임명 등 선출 제반 사항을 확정했다.

경주총추위 위원은 지난 11월 20일 제324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주총추위 규정에 따라 모두 20명이 위촉됐다.

경주총추위 위원으로는 종단 추천으로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삼혜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혜일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연운사 주지)이, 사회인사 대표로는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구자명 삼화회계법인 대표 △김봉석 K&J 법률사무소 금상 대표가 위촉됐다.

동문대표로는 조덕형 동국대 총동창회 경주동창회장이, 교원대표 석길암 · 하성 · 김진석 · 권오윤 · 김동헌 · 김상무 · 김근우 · 문일수 교수가, 직원대표는 이수우 · 이원재 · 박상익이, 학생대표로는 주재우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주총추위 위원장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임명됐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를 명문사학의 반석으로 올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화합과 소통으로 대학을 이끌어 주실 인물을 후보자로 잘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총장 선출을 위한 일정도 확정됐다. 경주총추위는 12월 12~13일 동국대 본관 4층 법인사무처에서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후 경주총추위는 12월 16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접수된 지원자 자격심사, 공개토론 관련 진행방안 정리, 소견발표 관련사항을 논의하며 19일 경주캠퍼스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어 27일에는 경주총추위 4차 회의를 열어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거쳐 이사회에 추천할 3~5명의 총장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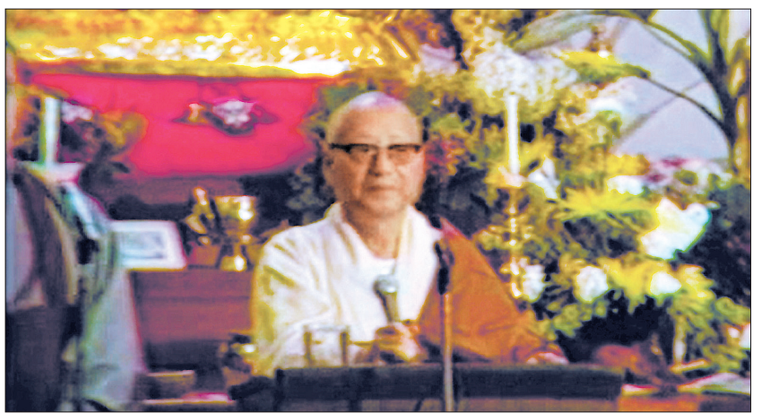
이와 함께 경주총추위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진행 일정에 대한 세부적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실무위원장에는 중앙종회의원 원명 스님, 위원에는 구자명 회계사, 조덕형 경주동창회장, 석길암 · 김진석 교수, 이수우 노조위원장, 주재우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탄허 스님 생전 마지막 법문영상 공개

한국불교학회, 11월 29일
제1회 탄허학술상 시상식서

1982년 숭산 스님 초청으로 방미
홍법원 10주년 기념법회서 법문
입적 8개월 前 설한 마지막 설법
특유 ‘삼교회통’ 사상 요체 담겨


탄허 스님 마지막 법문 영상 갈무리. 영상은 원적 8개월 전인 1982년 9월 15일 미국 홍법원 10주년 법회서 설한 법문을 촬영한 것이다.

한국불교 근현대 선지식 탄허 스님의 생전 마지막 법문 동영상이 공개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11월 29일 열린 제1회 탄허학술상 시상식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탄허 스님의 법문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법문 영상은 탄허 스님이 원적 8개월 전인 1982년 9월 15일 미국 홍법원 10주년 법회에서 설했던 법문을 촬영한 것으로 이는 사실상 현재 확인되는 생전 마지막 법문이다.

당시 탄허 스님은 미주포교의 신기원을 이뤘던 숭산 스님의 초청으로 홍법원을 찾았다. 법문 촬영은 아르헨티나 교민 불자가 했으며, 촬영자는 이를 보관해오다가 2000년대 초 서우담 교림출판사 대표에게 전달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됐다.

공개된 영상은 탄허 스님이 보여준 ‘삼교회통’의 요체가 담긴 법문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탄허 스님은 “유불선 삼교의 표현이, 불교는 만법(萬法)이 귀일(歸一)이라, ‘우주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이며 유교에서는 정일집중(精一執中)이라 ‘정미롭고 한결같이 해서 중도를 삼는다’이다. 도교에서는 득일(得一)이 만사필(萬事畢)이라 ‘하나를 얻을 것 같으면 만사는 다 끝난다’고 했다”고 설했다.

이어 “모든 것이 심성(心性)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유교에서는 존양(存養), 도교에서는 수련(修鍊), 불교는 명견(明見)를 말하는 것이다. 존양 · 수련 · 명견이라는 술어에서 벌써 유불선의 심천(深淺)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학회는 제1회 탄허학술상 수상자로 문광 스님을 선정해 이날 상을 수상했다.

문광 스님은 “탄허 스님 연구로 어른 스님의 이름이 들어간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탄허 스님의 사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출판상 대상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주최하고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가 주관하는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강명희, 담앤북스)이 선정됐다.

불교출판인들의 의욕을 고취하고 불교출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 제16회 불교출판문화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총 27개 출판사에서 83종이 접수됐으며, 이미령 북칼럼니스트,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문태준 시인, 교육원 교육부장 진광 스님이 심사를 맡았다.

심사결과 〈마음을 다스리는 12가지 명상〉(강명희, 담앤북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우수상에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에 날개를 달다〉(정진원, 조계종출판사)와 〈송광사 사찰숲〉(전영우, 모과나무)가 선정됐다. 신설부문인 수향번역상은 〈열반종요〉(원효 저 · 박태원 옮김, 세창출판사)가, 붓다북학술상은 〈백곡 처능, 조선불교 철폐에 맞서다〉(자현, 조계종출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 학 제 | 모집인원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 5년 | 100명 |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 3년 | 50명
박사과정 | 3년 | 10명
재경대학 | 4년 | 80명 |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7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